"광주공장, 글로벌 일류공장 키우겠다"

광주 방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밝혀

뉴스포티지와 함께 'AM'도 전략차종 육성

MK, 울산 이어 광주로 … 끝없는 현장경영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18일 "오는 9월 출시예정인 AM(프로젝트명)을 스포티지, 뉴카렌스와 함께 전략차종으로 육성, 광주공장을 글로벌 일류공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날 현대차 울산공장에 이어 이날 기아차 광주공장을 방문, 현장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정 회장은 AM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AM 생산라인의 설비 가동상태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AM은 스포티지와 카렌스에 이어 광주공장을 대표할 명차가 될 것"이라며 "품질과 생산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내년부터 연간 10만대씩 생산될 AM은 기존의 뉴카렌스, 조만간 혁신적인 모델로 새롭게 선보이는 스포티지와 더불어 광주공장의 '트로이카 체제'를 구축해 연산 40만대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정 회장은 "AM 출시는 광주공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협력업체들과의 동반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스포티지와 카렌스의 신화를 이어 AM이 해외시장에서 각광받기 위해서는 성능 뿐 아니라 디자인이 중요해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공장합리화 사업을 통해 지난 2004년 35만대, 2006년 42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12월 대형버스 '뉴 그랜버드' 출시와 함께 올해 초 하남공장을 버스 및 군수차량 전문공장으로 탈바꿈시켰다.

광주공장은 지난해 34만대 생산, 5조1천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1998년 6천200억원에 비해 8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광주지역 총생산액 22조8천억원의 26%를 차지한다. 수출액도 31억달러로, 광주 전체의 31%에 달한다.

조남홍 기아차 사장은 "광주공장은 전략차종 생산을 통한 산업발전 뿐 아니라 공장부지의 15%를 녹지로 조성하고 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등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광주공장의 성공은 광주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정몽구 회장 광주공장 방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이 18일 기아차 광주공장을 방문, AM 생산라인 근로자와 작업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월 가계대출 감소

광주·전남 대출잔액 10조5천억 전달보다 1.4% 줄어

연초 신용대출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 1월 광주·전남 등 전국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1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월중 광주·전남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조5천1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인 지난해 12월에 비해 1천485억원(1.4%) 줄어든 것으로, 연초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광주는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새 666억원 증가했지만 총 가계대출은 6조4천662억원으로, 503억원(0.8%) 줄었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1월중 전국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63조140억원으로, 전달보다 6천660억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가계대출이 1천951억원 줄었으며, ▲경남(-1천470억원) ▲대구(-1천402억원) ▲전북(-986억원) ▲전남(-982억원) 등의 감소세를 보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금호석유화학 3개 노조 '항구적 勞使 평화 선언'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기옥)은 18일 울산 합성고무 공장에서 3개 노동조합 대표(여수 합성고무공장, 울산 합성수지공장, 울산 합성고무공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구적 노사 산업평화 선언식'을 가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선언식에서 '노사간 상호 신뢰를 통한 항구적인 노사평화와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노사는 이 자리에서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08년도 임금교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회사에 위임키로 선언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이번 선포식은 회사가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창달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회사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매출 2조 5천300억원, 영업이익 2천76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휴경 논 1천389ha 유채·자운영 심는다

전남도 전체 물량의 43% '농촌 경관보전직불사업' 추진

전남도가 휴경논에 유채나 자운영 등 녹비작물을 재배해 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소득도 올리는 '농촌 경관보전직불사업'에서 전국 최대 사업량을 확보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08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서 도가 전체 물량의 43%인 1천389ha를 확보해 본격 추진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지에 일반 소득작물 대신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동계작물은 ha당 100만원, 하계작물은 ha당 170만원을 소득손실 보전 차원에서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는 국비 70%를 포함해 총 10억3천200만원의 예산이 파종시 50%, 사업 완료 후 50%가 각 농가에 지급된다.

지난 200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해 오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면서 면적이 대폭 확대됐고 대상 작물도 유채, 메밀, 자운영 등에서 경관효과가 좋은 초화류 등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전남도는 이달 안으로 현지 확인을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사업, 도농교류행사 및 지역축제 등과 연계되는 지구를 우선적인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住公, 여수 죽림지구 등 2,713필지 용지 공급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여수 죽림지구 등 전국에서 상업·편익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등 2천713필지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상업·편익시설용지가 635필지(20개 지구), 단독주택용지 2천48필지(18개 지구), 공동주택용지는 30필지(13개 지구) 등이다.

상업·편익시설용지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교육 및 공공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연계해 중심상권으로 개발된다는 장점이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부업 이자율 연 49% 초과 못해

작년 10월 4일 이전 계약도

작년 10월4일 이전에 대부업체와 계약을 맺고 빌린 돈의 이자율도 오는 22일부터 연 49%를 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모든 대부 계약에 대해 연 49%의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10월4일부터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아지면서 그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했으나 그 이전에 맺은 대부 계약의 경우도 오는 22일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연 49%를 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오는 8월 이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에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中企투자유치 지원사업 월 1회로 늘린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횟수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늘리고 투자 상담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인 3개월로 단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IR 자료 작성, 협상 자문 등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다.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이달 말까지 투자유치지원센터(www.ipluscenter.org)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화순·영광 등 27개 읍지역 광가입자망 구축

오는 6월부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오는 6월이면 화순·영광 등 전남도내 읍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KT전남본부에 따르면 영광읍 신하리 등 도내 9개군 27개 읍지역 5천여 가구에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광가입자망(FTTH : Fiber to the Home) 구축사업을 최근 착수했다.

5월까지 30억원이 투입될 이번 광가입자망 구축사업은 KT지점에서 각 가정까지 광케이블을 가설하는 사업으로 고객들은 광케이블을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통해 고화질·고품질 인터넷TV 시청과 인터넷 전화 등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충되는 지역은 화순·영광·장성·고흥·무안·완도·해남·광양·신안 압해 등 9개 군 27개 읍이다.

송기유 KT전남본부장은 "이 사업은 인터넷TV 시대를 맞아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관련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이다"며 "앞으로 면지역과 도서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